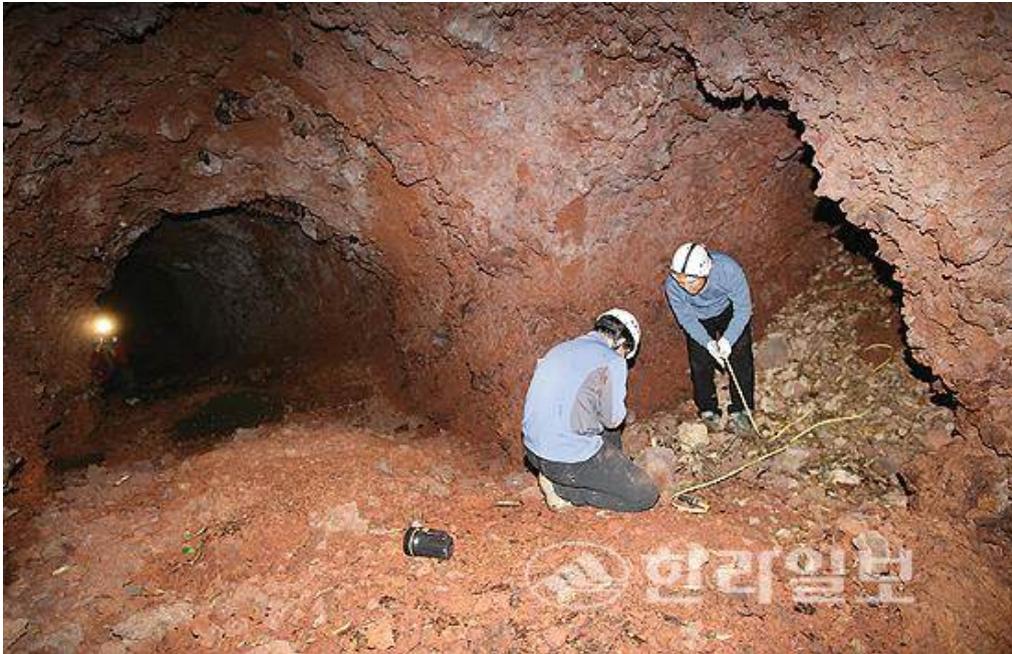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1)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1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26)이승악  
서귀포 지역 유일의 전진 거점진지

입력 : 2008. 01.24. 00:00:00



▲이승악에서 확인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갱도진지. /사진=이승철기자

## 'ㄷ형' 갱도진지... 북쪽 능선서 찾아내 당시 주둔 일본군 주요 진지대의 하나

오름 전체가 동백나무를 비롯한 천연림이다. 오름 양쪽으로는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데다 커다란 바위들이 숲 사이로 중간 중간 솟아있어 마치 작은 식물원을 연상시킨다. 정상부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의 암벽과 성판악이 번듯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취재팀이 찾은 이승악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은 고즈넉한 풍경을 감춰두고 있었다.

이승악(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해발 5백39m)은 '이승이오름' 또는 '이승이오름'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이승악(狸升岳), 또는 이생악(狸生岳)으로 표기한다. 오름 모양이 샅(샅괭이)처럼 생기고, 샅괭이가 서식한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나 분명치는 않다.

취재팀이 이승악을 주목한 이유는 '일본군제58군배비개건도'에 전진거점진지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장의 지도인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에는 이승악 일대가 주요 진지대로 나타난다.

오름 남쪽에서부터 굽부리를 따라 헤집고 다니길 두어 시간 됐을까. 취재팀은 미끈하게 솟은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룬 북쪽 능선에서 갯도진지를 찾았다. 해발 5백17m 지점이다.



▲이승악에서 찾아낸 일본군 갯도 앞에 만들어진 원형 석축

이 갯도는 전체적으로는 디근자형 구조다. 갯도 앞은 작은 알오름을 연상시킬 정도로 송이층이 쌓여있다. 갯도진지를 구축하면서 파낸 송이를 쌓아올린 것이다. 그 양으로 볼 때 갯도 규모는 꽤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입구 부분부터 함몰돼 버려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무너지다 틈이 겨우 생긴 공간으로 진입하자 갯도는 일자형으로 구축돼 있었다. 아마도 갯도의 주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길이는 20m 정도. 폭(2백90cm)과 높이(2백30cm)는 다른 갯도에 비해 규모가 컸다.

갯도 내부에는 당시 세웠던 갯목 흔적이 남아있다. 썩어 문드러져서 높이 30cm 정도 밑둥만 남아있지만 당시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현재 파악되는 갯도 규모는 작지만 내부는 갯목을 설치하는 등 거의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갯도 10여m 지점 아래쪽에는 또다른 석축흔적이 남아있어 취재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석축은 둥근 형태로 잡석을 조밀하게 쌓아올린 형태다. 오름기슭의 지형을 자연스레 이용하면서 아래쪽은 폭 6m, 높이 1m 안팎의 장방형으로 기단을 만든 다음 가운데 부분은 바닥서부터 둥근 돌을 쌓아올려 원형 석축을 만든 것이다. 원형석축은 높이가 1.2m 정도, 직경 2.9m 안팎이다.

일본군 군사시설 흔적은 오름 하단부에서도 나타난다. 산책코스로 개설한 소릿길 근처, 해발 4백92m 지점에서 입구가 함몰된 갯도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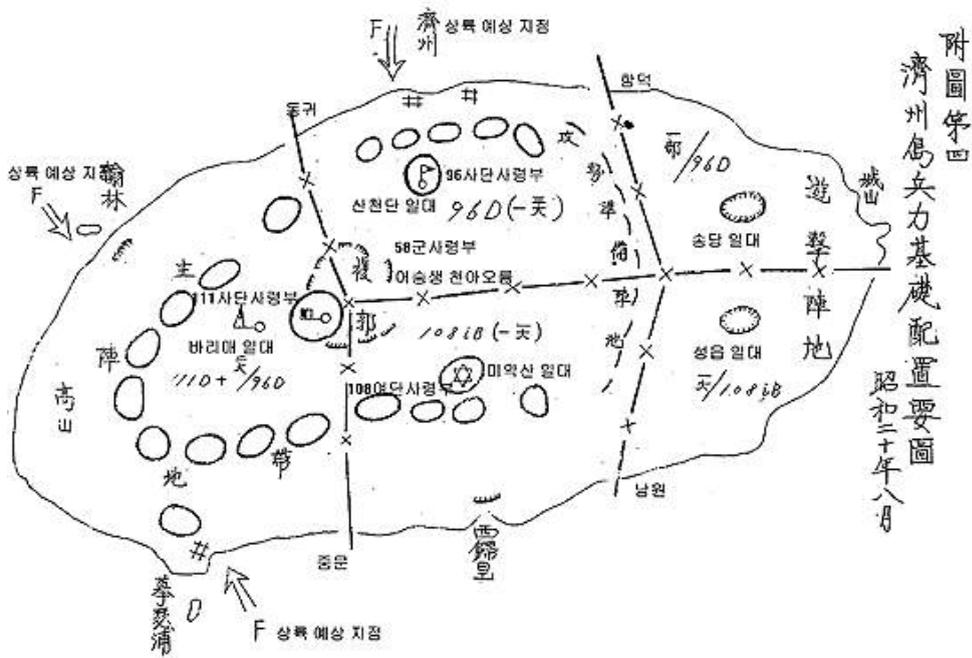
서귀포지역 유일의 전진거점진지인 이승악은 '주저항진지'인 수악과는 신례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일대는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를 보면 강력한 주진지대를 구축 방어전선을 형성한다. 즉 이승악 일대는 108여단 사령부 주둔지인 미악산 일대를 포함한 구 서귀포지역의 일본군 주둔실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현장 중의 하나인 것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갯도진지 내부에 남아있는 갯목

[탐사포커스/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일본군 주둔 초기상황 한눈에 '쏘옥'



1945년 작성된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지도)를 보면 제주도에 제11사단과 96사단, 108여단이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화 20년 8월, 즉 1945년 8월로 표기된 이 지도는 그 해 4~5월 쯤의 일본군 병력배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지도는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군 제주도 주둔 초기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다.

지도에는 미군의 상륙예상지점으로 모슬포와 한림 제주 등 3곳이 표기돼 있으며, 권역별 진지 성격 및 주둔부대를 알 수 있다.

즉 미군의 가장 유력한 상륙예상지점으로 꼽히던 제주도 서남부 일대는 1945년 초반에 제11사단과 96사단이 주둔한다.

또 제주도 중앙부는 남북으로 구분해서 북쪽 구 제주시권은 제96사단이, 남쪽 구 서귀포시권은 108여단 관할지로 나타난다. 동부지구 역시 조천-구좌 일대는 제96사단이 성산-남원 일대는 108여단이 분할해서 주둔하고 있다. 현재의 중문단지에서부터 서귀포 성산읍 난산 지경까지가 108여단 주둔지인 것이다. 구 서귀포 지역은 미악 등지에 108여단 사령부가 위치해 있는 걸로 나타난다. 미악산 전방에는 크게 4곳의 주진지대가 표시돼 있다.

108여단 주둔지는 다시 동부지역은 유격진지대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부는 공격준비진지대로 성격을 구분해서 미군과의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 시기 제96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산천단 일대에, 제111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애월읍 발이오름(바리매) 일대에 두고 있다.

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은 "1945년 4~5월쯤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상황을 보여준다"며 "그 해 6월 시점에는 제주시·서귀포 지역 등 제주중앙부는 96사단이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